



마곡사 창건 및 중건

마곡사 「사적입안」에는 신라 자장율사가 정관(貞觀) 17년(643)에 당나라에 다녀온 뒤, 선덕여왕 때에 창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온 다음 7대 가람을 창건하였는데, 마곡사가 그 세번째라고 한다. 「사적입안」에는 “최초 창건이 자장이요, 재조(再造)는 보조이며, 삼건(三建)은 범일이요, 사수(四修)는 도선이며, 오성(五成)은 각순이다.”라 하였다. 이로부터 마곡사는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이 함께 연관된 선종사찰(禪宗寺刹)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다. 근세에는 만공선사가 마곡사 주지로 있으면서 31본산주지회의에 참석하여 조선 총독 미나미(南次郎)의 불교정책을 꾸짖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한다. 2018년 6월 30일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영산전(보물 제800호)



대광보전(보물 제802호)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1972년 지정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류문명과 자연유산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말한다.

백제는 기원전 18년~660년까지 약 700여 년간 존속한 삼국시대의 한 국가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후기(475~660년)의 문화유산으로 공주의 공산성의 왕궁지, 왕궁부속시설지, 백제토성과 송산리고분군의 무덤양식과 국립공주 박물관과 부여의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

백제후기는 중국에서 도시계획, 건축기술, 예술, 종교를 받아들여 백제만의 독자적인 문화발전을 이루었고, 일본과 동아시아에 전하였다.

이는 백제가 동아시아의 교류의 거점으로 백제문화의 국제성과 개방성을 말해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되고, 진정성(眞正性 Authenticity)과 완전성(完全性 Integrity)을 세계인이 주목한 이유이다.

고대국가 왕도의 생활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왕궁시설, 조경시설, 고분유적, 공예품 등 문화유산이 완전한 상태(국가문화재)로 보존(진정성) 되었으며,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적 관리체계(완전성)를 갖춰 세계유산이 되었다.



1946년 마곡사 방문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UNESCO WORLD HERITAGE

천년고찰 마곡사

마곡사 입지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 중 제6교구 본사인 천년고찰 마곡사는 100여개 사암을 관할하는 충남 불교大本山(大本山)의 하나이며, 특히 왕벚꽃, 산수유, 자목련 등이 꽃을 피우는 봄이 가장 아름답다 하여 봄은 마곡사, 가을은 갑사라는 뜻으로 ‘춘마곡 추갑사(春麻谷 秋甲寺)’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천년고찰이다.



대웅보전(보물 제801호)



오층석탑(보물 제799호)

백범 김구선생의 발자취

백범당(白凡堂)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며 독립운동의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金九, 1876~1949)선생이 1896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로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나루에서 일본군 장교를 죽이고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하여 마곡사에 은거할 때 원종(圓宗)이라는 법명으로 잠시 출가하여 수도하였던 곳이다.

백범 김구선생은 1898년 마곡사를 떠난후, 근 50년 만에 돌아와 대광보전 기둥에 걸려있는 주련의 却來觀世間 猶如夢中事(각래관세간 유여몽중사: 돌아와 세상을 보니 마치 꿈 가운데 일 같구나)라는 능엄경에 나오는 문구를 보고 감개무량하여 그때를 생각하며 한그루의 향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지금도 백범당 옆에 푸르게 자라고 있다.





UNESCO WORLD HERITAGE

웅진백제의 왕성 공산성

공산성(사적 제12호)

공산성은 백제시대 웅진도읍기(475~538년)의 공주를 방어하기 위한 왕성(王城)으로 금강변에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쌓아 천혜의 요새와 같다. 문주왕원년에 한강유역(한성)에서 공주(웅진)로 천도, 성왕 16년(538년) 부여(사비)로 천도할 때 까지 5대 64년간 왕도를 지켰다.

발굴조사로 공주 시가지와 금강, 송산리 고분군이 조망되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왕궁지, 산성내 가장 넓고 평탄한 지형에 있는 왕궁부속(건물지, 축대 도로, 저수시설, 배수시설 등)이 확인되었고, 저수 시설에서 출토(2011년)된 옷칠한 갑옷, 마갑, 화살촉 등은 백제유적의 진정성을 뒷받침해준다.



임류각



왕궁지 연지



웅진성수문병고대식



연지 및 만하루



왕궁지



술토 옷칠갑옷



왕궁지 연지

임류각은 왕궁의 동쪽에 있는 누각으로 백제 24대 동성왕(500년)때 왕궁의 동쪽에 지은 누각으로 왕과 신하들의 연회 장소로 추정된다. 무령왕릉의 유물의 문양을 단청으로 활용하여 재현하였다. 왕궁지에 있는 연지에서 발굴된 삼족 토기와 그릇받침, 기와 등은 백제왕실의 생활문화를 알 수 있고, 영은사 아래의 연지는 돌로 정연하게 쌓고 동서로 넓은 통로가 있으며, 금강 사이에 만하루가 있다.

공산성대표누각

공산성은 사방으로 통하는 동서남북에 영동루, 금서루, 진남루, 공복루가 있다. 영동루 인근은 백제의 토성과 조선의 석성을 함께 볼 수 있으며, 금서루는 백제왕성을 지켰던 수문병의 근무교대식(4~10월 주말/혹서기 제외)을 재현하며 야경이 아름답다. 진남루는 삼남(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관문이었으며, 공복루는 금강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루(도지정유형문화재 제37호)양식으로 건립하였다.



영동루



금서루



진남루



공복루

UNESCO WORLD HERITAGE

백제사의 열쇠 송산리 고분군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

송산리 고분군은 웅진시기(475~538년)의 백제왕릉군으로 7기의 고분이 정비되어 있다. 1~5호분은 굴모양의 돌로 쌓은 무덤(석실분)이고, 무령왕릉과 6호분은 터널형벽돌로 쌓은 무덤(전축분)이다. 특히 무령왕릉은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었고 축조시기(525년)가 확인되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교류를 알 수 있다.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백제 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1971년 배수로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장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한국 고대의 유일한 왕릉으로 1,500년 전의 화려하고 세련된 미의식, 수준 높은 공예 기술을 통해 찬란한 백제문화를 엿볼 수 있다.



왕금제관장식
[국보 제154호]



왕비금제관장식
[국보 제155호]



묘지석
[국보 제163호]



석수
[국보 제162호]

웅진백제역사가 쉽게 다가옵니다!

웅진백제역사관은 백제역사 콘텐츠와 IT시스템을 활용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영상관과 전시관을 갖추고 있으며, 송산리고분군모형전시관에는 무령왕릉과 5·6호분을 실물 크기로 재현, 백제왕릉의 발굴과정을 살펴 보고 체험으로 백제문화를 배울 수 있다.

송산리 고분군 북쪽에 백제왕실의 제사시설인 정지산유적(사적 제473호)이 있으며, 금강과 공산성, 금강철교가 한 눈에 들어온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의 출토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령왕릉실, 충남지역의 고대~통일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충청남도 고대문화실, 야외 전시장과 우리문화체험실을 갖추고 있다.



웅진백제역사관



송산리고분군모형관



정지산유적



국립공주박물관